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집약 도시로 성장 중



익산시가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에너지산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주도산업'인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익산에 밀집해 첨단기술집약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고 수소연료전지 두산퓨얼셀(주)과 이차전지 소재 일진머티리얼즈(주), 이차전지 음극재 및 반도체 공정소재 (주)한솔케미칼을 비롯해 양극재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LG화학이 익산에서 생산활동을 펼치며 미래에너지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수소기술 미래주도 '두산퓨얼셀'

지난 2일 제정된 '제1회 수소의 날'을 맞아 국내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이자 5,000만달러 수출 성과를 거뒀던 산업포장을 수상한 두산퓨얼셀은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두산퓨얼셀(주)'은 국내 최고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으로 정부 수소 산업을 이끌고 있다. 현재 익산 제2단지 기존 공장 부지에 지난해 574억원을 투자해 공장 가동 중이다.

올해 10월에는 생산 공정의 증축을 완료해 연간 최대 생산능력을 275MW까지 확대하고 3산단 입주 기업인 제이앤엘테크의 증설투자도 이뤄진다. 이로써 관련 기업투자의 시너지 효과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주도산업'인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익산에 밀집해 익산시가 첨단기술집약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두산퓨얼셀이 위치한 제2산업단지의 모습이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파로 연료전지 산업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 18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익산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을 찾아 수소 사회 전환을 위해 정부차원의 단기·중장기 전략확보에 대한 수소 분야 산학연 간 담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두산퓨얼셀·일진머티리얼즈·LG화학·한솔케미칼 등
익산 국가·일반산단에 밀집... 든든한 성장동력으로
국가전략핵심기술 신산업 분야 대기업 생산활동 '두각'**

두산퓨얼셀(주)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해 익산이 수소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전지 일진머티리얼즈, 양극재 LG화학 익산공장, Si-음극재 한솔케미칼

세계수준의 초고강도 동박 기술을 보유한 일진머티리얼즈(주)가 제2국가산단과 제3일반산단에서 II, 모바일제품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LG화학 익산공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이는 배터리 소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제1·2산단에 위치한 3개 공장에서는 이 밖에도 엔지니어링 소재, 생명과학 분야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차전지 음극재 및 반도체 내부소재 중견기업인 (주)한솔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익산 제1일반산단 9만4,467㎡ 부지에 단계적으로 생산라인

을 준공 중이다. 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익산에 위치한 두산퓨얼셀을 포함해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다양한 생산활동은 지역의 산업생태계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 익산의 든든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